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1기 제6차 회의 결과 분석

2008. 4

통일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통일정세분석 2008-06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1기 제6차 회의 결과 분석

2008. 4

최 수 영 (북한연구실 선임연구위원)

KINU 통일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당 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목 차

Ⅰ. 서론 ····· 1

Ⅱ. 내각의 2007년 사업정형과 2008년 과업 ····· 2
1. 주요 내용 ····· 2
2. 분석 ····· 7

Ⅲ. 2007년 국가예산집행 결산과 2008년 국가예산 ····· 9
1. 주요 내용 ····· 9
2. 분석 ····· 11

Ⅳ. 종합평가 ····· 17

<부록> 최고인민회의 제11기 제6차회의, 4.9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 · 20

표 목차

<표 Ⅲ-1> 북한의 재정규모 ····· 12
<표 Ⅲ-2> 북한의 결산지출 항목별 구성비 ····· 13
<표 Ⅲ-3> 북한의 예산 및 결산 발표 내용 ····· 14
<표 Ⅲ-4> 북한 예산수입계획의 부문별 증가율 ····· 15
<표 Ⅲ-5> 북한 예산지출계획의 부문별 증가율 ····· 16

Ⅰ. 서론

○ 북한은 2008년 4월 9일 최고인민회의 제11기 제6차 회의를 만수대 의사당에서 개최하였음.
- 참가자: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 방청자: 당, 무력기관, 정권기관, 사회단체, 성, 중앙기관 일꾼들과 과학, 교육, 문화예술, 보건, 출판보도부문 일꾼들
- 주석단: 당과 군대, 국가 간부들과 우당 위원장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들
- 의장석: 최고인민회의 의장(최태복)과 부의장

○ 이번 제6차 회의는 최태복 의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2가지 의정 보고 및 토론, 대의원 전원 찬성으로 의정 채택, 의장의 폐회사 순으로 진행되었음.
- 첫째 의정: '내각의 2007년 사업정형과 2008년 과업에 대하여' (김영일 총리 보고)
- 둘째 의정: '2007년 국가예산집행의 결산과 2008년 국가예산에 대하여'(노두철 부총리 보고)
- 전승훈 대의원 외 9인 토론, 박도춘 대의원 외 4인 서면토론
- 강능수 대의원을 최고인민회의 부의장에서 소환

○ 본 보고서의 목적은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1기 제6차 회의의 주요 내용인 2007년 사업 성과와 2008년 과업, 2007년 결산과 2008년 예산을 살펴본 후 이를 분석, 종합평가하는 것임.

Ⅱ. 내각의 2007년 사업정형과 2008년 과업

1. 주요 내용

가. 2007년 사업정형

○ 2007년 북한은 선군정치에 의해 마련된 강력한 정치군사적 위력에 의거하여 경제건설에 역량을 집중하였다고 주장함.
- 그 결과 나라의 경제적 잠재력과 인민의 창조능력을 과시하는 성과를 도출
- 경제, 문화건설 분야에서 이룩된 모든 성과들은 당의 선군혁명 영도에 의하여 마련된 결실이라고 주장

○ 2007년 내각은 선군시대의 경제건설 노선을 확고히 하면서 경제사업을 작전, 조직, 전개하였다고 주장함.
- 인민군대의 전투력 강화와 국방공업 발전을 위한 물질적 보장사업에 최우선 주력
- 농업과 경공업 부문의 증산을 통해 선행부문을 추켜세우고 인민경제의 기술개건에 중점을 두고 경제사업 추진
- 이에 따라 주요 공장 기업소(수풍발전소, 룡성기계연합기업소, 대안친선유리공장, 대동강축전지공장, 박천견직공장 등)는 인민경제계획을 초과 수행

○ 2007년에는 공업이 활성화 궤도에 진입, 특히 전력생산과 주요 공업제품(공작기계, 발전기, 화학비료, 일반 천, 신발 등)의 생산이 훨씬 증가하였고 전반적 소비품 생산토대가 보강되었다고 언급함.

- 인민경제 선행부문 기초공업부문의 물질 기술적 토대 강화: 신규 발전소(삼수발전소 등) 조업, 김책제철연합기업소와 천리마제강연합기업소의 주요 생산공정들의 기술개건, 철길강도 제고 사업과 기관차, 화차생산 기지들의 정비 보강 사업 추진
- 주요 공장 기업소(단천제련소, 희천공작기계공장, 평양3.26전선공장, 순천세멘트연합기업소, 함흥목재품공장 등)의 현대화 추진
- 영남배수리공장의 대형화물선 수리기지화 사업 및 무역항들의 기술개건 진행, 체신의 현대화를 통해 정보 통신의 토대 마련
- 여러 화학 중공업기지들(2.8비날론연합기업소, 평양방직공장, 원산구두공장, 경성도자기연합기업소 등)에 선진기술공정 도입, 많은 시군(회령시, 장강군, 의주군 등)의 지방산업공장들의 기술 개건 및 공장, 기업소, 생활필수품직장, 작업반들 개건

○ 농업혁명방침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전개하였다고 주장함.
- 다수확 품종 도입, 미루벌 물길공사 진행, 평북도 돼지공장 및 여러 지역(사리원, 강계, 함주 등)에 현대적 축산기지 조성

○ 국토관리사업을 전개하여 국토의 면모를 일신, 도시건설 및 보수사업을 추진해 선군시대 사회주의 선경을 이루었다고 주장함.
- 주요 도로들의 건설 및 기술 개건, 강하천 정리와 제방공사를 군중적 운동으로 전개
- 평양시 주요 거리 보수 및 회령시 정비 사업 진행, 사리원시 민속거리 조성, 농촌마을들을 미곡리 마을처럼 꾸리기 위한 사업 전개

○ 과학기술중시 노선에 따라 과학기술발전에 주력해 생산의 활성화와 인민경제의 기술개건에 이바지하였다고 언급함.

- 2007년까지 과학기술발전 5개년계획(2003~2007년)의 주요 과제들을 수행
- 2007년에도 주요 과학기술성과 도출(구체적 성과 미제시)

○ 2007년 여름의 수해피해복구사업에 당, 군, 인민이 함께 매진하였음을 언급함.
- 수해피해복구사업을 도와준 해외동포, 세계 진보적 인민, 국제기구에 대해 감사를 표명

○ 교육, 보건, 음악, 문화, 체육부문에서도 성과가 있었다고 보고함.
- 김일성종합대학, 함흥화학공업대학, 청진광산금속대학을 비롯한 각급 교육기관들의 현대화 및 교육의 질 제고사업 진전
- 함경북도 인민병원 건설, 평양의학대학병원을 비롯한 중앙과 도, 시, 군 인민병원과 온천치료실 조성, 의약품 생산과 공급사업 개선
- 선군음악예술의 새로운 경지를 보여주는 우리식 음악작품들 다수 창작, 군중문화예술의 참다운 본보기들 창조
- 체육부문에서 훌륭한 경기성과 도출

나. 2008년 과업

<중심 과업>

○ 당이 제시하고 있는 김일성 탄생 100돌이 되는 2012년까지 강성대국 진입을 위해 2008년에도 방위력 강화를 위한 보장사업을 최우선시할 것을 요구하면서 다음과 같은 경제부문의 중심과업을 제시함.
- 선행부문 기초공업부문의 발전
- 인민경제의 기술개건 추동

- 인민생활 제일주의 원칙에서 먹는 문제, 식량문제, 소비품문제를 해결해 근로자 생활의 실질적 개선

<부문별 과업>

○ 4대 선행부문(전력, 석탄, 금속, 철도운수)에 인적, 물적 자원을 총집중함과 동시에 이 부문의 연계와 협동을 강화해 선행부문, 기초공업부문의 발전에 적극 협력해 공업총생산액을 성장시켜 경제강국으로 진입하자고 하였음.

- 전력공업: 건설중인 대규모 수력발전소들의 조기 조업, 현존 수력발전소들의 수차개조 사업 추진, 화력발전소들의 설비보수와 석탄보장 사업 추진, 생산된 전력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이용
- 석탄공업: 석탄증산을 위한 굴진 선행, 채탄장 수 확대, 선진적인 채탄방법 적극 도입
- 금속공업: 생산 정상화를 위해 주체철 생산방법과 기술공정 완성, 설비들의 정비 및 보강, 금속공장들에 물동수송 문제 해결
- 철도운수부문: 철도화물 수송의 정상화를 위해 기관차, 화차 생산과 수리를 강화해 운영대수를 확대, 수송지휘에서 유일사령지휘체계 확립
- 지질탐사 사업을 통해 유용광물(석탄, 유색금속 등) 개발 후보지 확보, 채굴공업을 발전시켜 지하자원 개발, 기계공업 부문은 생산토대의 효과적인 이용을 통해 기계제품 증산
- 전자공업 발전을 통해 전자제품 증산, 체신의 현대화 계속 추진, 화학공업부문과 건재공업부문, 임업부문에서는 기술개건으로 중요 화학제품과 세멘트, 통나무 증산

○ 인민생활 제일주의 관철을 강조하면서 2008년에는 먹는 문제, 식량

문제 해결에서의 진전을 이루자고 하였음.

- 당의 농업혁명방침 아래 다수확 품종들을 적지적작의 원칙에서 전면적인 수용, 선진영농 기술과 방법의 확대 보급과 일반화, 자체로 농사짓는 운동 전개
- 건설된 현대적인 닭공장, 오리공장, 돼지공장들에서 고기와 알 증산, 경공업공장을 완전 가동하여 인민소비품들을 대대적 생산

○ 보건, 수도건설, 국토관리사업 관련 과업에 대해 간단히 언급하였음.

- 각급 병원들의 정비 및 의료봉사 수준 제고
- 평양시 건설을 대대적으로 전개
- 나라를 사회주의 선경으로 만들기 위해 국토관리사업을 전망계획에 따라 진행

○ 경제발전에서 과학기술 발전의 기여율을 높일 것을 목표로 제시하고 이를 위해 2008년에는 모든 부문에서 새로운 과학기술발전 5개년 계획(2008~2012년)의 첫해 과제들을 어김없이 수행하자고 하였음.

- 모든 공장 기업소들에서 높은 과학기술에 기초한 생산체계 확립
- 프로그람 기술의 조기 발전 및 정보산업발전에 매진

○ 대외경제사업을 더욱 확대 발전시켜 나가는 것도 중요한 과업의 하나라고 하였음.

- 외국과의 대외경제관계에서 주체 확립
- 무역활동의 다양화 다각화
- 경제합영합작과 경제기술협조사업의 확대 발전

○ 사회주의 경제관리에 대한 지도와 관리를 개선하고 우리식으로 완

성하는 것은 내각의 중요한 임무라고 강조하였음.
- 경제관리에서 사회주의 원칙, 집단주의 원칙을 철저히 고수
- 우리식 경제관리 방법들을 부단히 연구 완성

2. 분석

가. 2007년 사업정형에 대한 구체성 결여

○ 지난 최고인민회의 제11기 제5차 회의에서는 내각의 2007년 경제건설 과업을 부문별로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으나 이번 제11기 제6차 회의에서 2007년 사업정형(성과)은 부문별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음.

○ 2007년 경제건설 과업은 모든 부문에서 구체적으로 제시되었음.
- 농업혁명방침 관철을 통한 먹는 문제 해결의 획기적 전진을 이루기 위해 농업, 축산, 과수, 잠업, 수산, 양어부문에 대한 구체적인 과업
- 인민소비품 증산 및 경공업 원자재 보장을 위한 과업
- 근로자들의 생활상 편리 보장 및 살림집 문제 해결을 위한 과업
- 4대 선행부문과 공업부문 발전을 위해 전력, 석탄, 금속, 철도운수, 지질탐사, 채취공업, 기계공업, 화학공업, 건재공업, 임업부문에 대한 구체적인 과업
- 기념비적 건축물 조성과 국토 정비를 위한 과업
- 인민경제의 현대화와 정보화에 요구되는 과학기술발전을 위한 과학기술부문 과업
- 대외경제사업 개선 과업
- 사회주의 경제관리 방법의 개선·완성 과업
- 사회주의 문화건설 추진 과업

- 선군혁명 노선 관철 과업
- 내각의 기능과 역할, 경제일꾼들의 책임성 제고 과업

○ 그러나 2007년 사업정형은 부문별로 간략하게 언급하고 있어 2007년 경제건설 목표가 제대로 달성되지 않았음을 짐작할 수 있음.
- 특히 4대 선행부문과 공업부문 발전을 위한 과업, 인민소비품 증산 및 경공업 원자재 보장 과업, 농업혁명방침 관철을 위한 과업 등에서는 구체적인 성과가 일부만 제시

나. 2007년 대비 2008년 과업 대폭 축소

○ 2007년에는 부문별로 수많은 과업을 제시하였으나 2008년에 제시된 과업은 부문 및 그 수에 있어 현저히 축소되었음.
- 4대 선행부문에서는 부문별로 구체적 과업 축소
- 기타 공업부문에서는 구체적인 과업은 거의 제시하지 않고 부문별로 증산만 요구
- 인민생활 제일주의 관철을 강조하면서도 농업과 경공업부문에서는 극히 제한적인 과업만 제시

○ 2008년 과업의 대폭 축소는 내각의 역할(경제현장 지도·장악 및 계획수립 능력) 및 위상 약화 가능성을 내포할 수 있음.
- 2007년에 경제를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아 인민경제를 중심으로 경제발전에 총력을 기울였으나 그 성과는 부진
- 따라서 2008년 과업 축소는 2008년 경제건설에 대한 불확실성 증대와 비관적인 전망을 반영
- 동시에 2007년 인민경제 발전에 앞장선 내각의 역량에 대한 최고지도자의 불신이 반영되었을 가능성 존재

Ⅲ. 2007년 국가예산집행 결산과 2008년 국가예산

1. 주요 내용

가. 2007년 결산

○ 2007년 국가예산수입은 계획 대비 100.2% 수행, 전년 대비 6.1% 증가하였음.

- 육해운성, 건설건재공업성, 국토환경보호성, 국가자원개발지도국, 화력건설연합기업소, 북창화력발전연합기업소를 비롯한 성 중앙기관과 관리국, 연합기업소의 중앙예산 집행에서 예산수입계획을 초과 수행
- 지방예산수입은 계획 대비 10.9% 초과 수행, 많은 자금을 중앙예산에 납입

○ 국가예산지출은 수해피해 복구자금 등 예상치 못한 추가 지출로 계획 대비 101.7%로 초과 집행되었음.

- 농업부문 지출액은 2006년 대비 8.5% 증가
- 경공업부문에 대한 지출도 전년 대비 증가
- 4대 선행부문에 많은 자금 투자 및 과학기술부문에 대한 투자 증가
- 인민적시책비를 계획보다 초과 지출
- 국방비로 예산지출총액의 15.7%를 지출

나. 2008년 예산

○ 2008년 국가예산 수입계획은 2007년 대비 4.0% 증액 편성하고, 전년 대비 예산수입의 부문별 증가율을 다음과 같이 예상하였음.
- 국가기업이득금 수입: 4.7%
- 협동단체이득금 수입: 0.4%
- 고정재산 감가상각금 수입: 2.6%
- 부동산 사용료 수입: 3.1%
- 사회보험료 수입: 1.1%

○ 2008년 국가예산 지출계획은 2007년 대비 2.5% 증액 편성하고, 전년 대비 예산지출의 부문별 증가율을 다음과 같이 예측하였음.
- 4대 선행부문: 49.8%
- 농업부문: 5.5%
- 경공업부문: 증가(구체적 수치는 미제시)
- 과학기술부문: 6.1%
- 인민적시책: 1.7%(이 중 교육부문 4.2%, 보건부문 5.9% 증가)

○ 2008년 국가예산 지출총액의 구성에서는 국방비 지출만 제시함.
- 국방비로 국가예산 지출총액의 15.8% 편성

○ 모든 부문, 모든 단위의 경제지도일꾼들이 월별 분기별 인민경제계획과 국가예산 수립계획을 어김없이 수행하자고 결의하고 다음 사항을 요구함.
- 경제지도일꾼: 과학적인 기업전략과 경영전략 수립, 실리 위주의 경제사업 조직 전개, 경영계산과 회계결산의 수준 제고

- 재정운영부문일꾼: 재정의 유일관리제 원칙에 맞게 재정수입 최대한 확보 및 규정에 따른 지출 등 재정규율, 현금유통규율 확립 및 감독·통제 강화

2. 분석

가. 2007년 결산

<재정적자 지속>

○ 2007년 북한의 국가예산수입은 계획 대비 0.2% 증가하였으나, 국가예산지출은 계획 대비 1.7% 초과하였음.

- 국가예산지출의 초과 집행은 수해피해 복구 등을 비롯한 예상 밖의 추가 자금 지출요인 발생이 원인

○ 북한은 2002년 '7·1경제관리조치' 이후 지속적으로 재정적자를 보이고 있음.

- 2007년 재정수지 적자규모는 2003년 이래 가장 낮은 수준으로 67.2억원
- 2007년 결산지출액은 4,339.4억원, 결산수입액은 4,065.4억원

<표 Ⅲ-1> 북한의 재정규모

(단위: 북한 만원)

	예 산		결 산		
	수 입	지 출	수 입	지 출	재정수지
2003년	-	-	33,232,356	32,344,936	-887,420
2004년	35,126,600		33,754,600	34,880,700	-1,126,100
2005년	38,851,545	38,857,100	39,162,357	40,566,812	-1,404,455
2006년	41,942,884	41,986,650	40,894,312	41,944,663	-1,050,351
2007년	43,307,076	43,328,837	43,393,690	44,065,427	-671,737
2008년	45,129,438	45,167,063	-	-	-

주: <표 Ⅲ-3>을 근거로 계산·작성

<지방예산수입 초과 수행>

○ 2007년에도 지방예산수입은 계획 대비 초과 수행하였음.

- 지방예산수입은 2005년 14.2%, 2006년 14.9%, 2007년 10.9% 초과 수행
- 반면 국가예산수입은 2005년 0.8%, 2007년 0.2% 초과 수행되었으나 2006년에는 -2.5% 부족

<국방비의 결산지출 구성비 감소>

○ 2007년 결산지출 항목별 구성비 중 국방비의 구성비는 전년 대비 0.3% 포인트 감소하였음.

- 북한은 결산지출 항목 중 국방비의 구성비(15.7%)만 발표
- 국방비의 구성비는 2005년, 2006년 대비 각각 0.2%, 0.3% 포인트 감소

<표 Ⅲ-2> 북한의 결산지출 항목별 구성비

(단위: %)

	인민경제비	인민적시책비	국방비
2003년	-	40.5	15.7
2004년	41.3	40.8	15.6
2005년	41.3	-	15.9
2006년	40.8	-	16.0
2007년	-	-	15.7

자료 : 북한의 각 연도 예산, 결산 발표 내용

나. 2008년 예산

<국가예산계획의 총증가율 지속 둔화>

○ 북한의 예산계획의 총증가율은 수입과 지출 모두 2005년 이래 지속적으로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음.

- 국가예산수입계획과 국가예산지출계획은 전년 대비 각각 4.0%, 2.5% 증액 편성
- 그러나 2008년 예산수입계획의 증가율은 전년 대비 1.9% 포인트, 예산지출계획의 증가율은 전년 대비 0.8% 포인트 둔화

<표 Ⅲ-3> 북한의 예산 및 결산 발표 내용

	예산1)		결산2)	
	수입	지출	수입	지출
2003년	113.6%	114.4%	100.9%	98.2%
2004년	3,512억6,600만원		112억6,100만원 적자	
	105.7%	108.6%	-	99.3%
2005년	115.1%	111.4%	100.8% (116.1%)	104.4%
2006년	107.1%	103.5%	97.5% (100.4%)	99.9%
2007년	105.9%	103.3%	100.2% (106.1%)	101.7%
2008년	104.0%	102.5%	-	-

주 1) 예산의 수입과 지출은 전년 대비 수치임.
2) 결산의 수입과 지출은 계획 대비, ( )는 전년 대비 수치임.

자료: 북한의 각 연도 예산, 결산 발표 내용

<예산수입계획의 증가율: 모든 부문 둔화>

○ 북한이 예견한 2008년 예산수입계획의 부문별 증가율은 모든 부문에서 2007년 대비 둔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남.

- 사회보험료(14.0%), 부동산 사용료(12.1%), 고정재산 감가상각금(7.0%), 협동단체이득금(4.1%), 국가기업이득금(1.7%) 등의 순으로 증가율 둔화

<표 Ⅲ-4> 북한 예산수입계획의 부문별 증가율

(단위: %)

	국가기업 이득금	협동단체 이득금	고정재산 감가상각금	부동산 사용료	사회 보험료	재산 판매	기타
2003년	5.0	3.3	-	3.7	6.7	-	-
2004년	16.5	-	-	-	-	-	-
2005년	13.5	8.4	-	-	3.0	-	-
2006년	7.2	23.2	1.8	12.0	141.0	1.7	0.9
2007년	6.4	4.5	9.6	15.4	15.1	-	-
2008년	4.7	0.4	2.6	3.1	1.1	-	-

주: 2006년부터 부동산사용료, 그 이전에는 토지사용료

자료: 북한의 각 연도 예산, 결산 발표 내용

<예산지출계획의 증가율: 선행부문 급증, 여타 부문 둔화>

○ 2008년 예산지출계획의 부문별 증가율은 2007년과 비교할 때 4대 선행부문을 제외하고는 증가율이 둔화된 것으로 나타남.

- 4대 선행부문: 2007년(11.9%) 대비 2008년(49.8%)의 증가율은 37.9% 포인트 증가
- 여타 부문: 과학기술부문의 증가율이 가장 크게 감소(54.2% 포인트)하였고, 농업부문(3.0% 포인트), 교육사업비(2.8%), 보건사업비(3.9% 포인트)의 증가율이 감소

<표 Ⅲ-5> 북한 예산지출계획의 부문별 증가율

(단위: %)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인민경제비	농업	21.3	-	29.1	12.2	8.5	5.5	
	경공업	12.4	-	-	-	16.8	-	
	4대 선행부문	전력: 12.8 석탄: 30.0	-	-	9.6	11.9	49.8	
	과학기술	15.7	60.0	14.7	3.1	60.3	6.1	
	건설	18.5	-	-	-	-	-	
인민적시책비	교육	15.3	9.5	10.3	3.0	7.0	1.7	4.2
	보건	13.1	5.9			9.8		5.9
	사회보험·보장	-	-			9.4		-
	문화·예술	4.4	-			-		-
	체육	6.6	-			-		-
	추가적시책	-	8.1			-		-

자료: 북한의 각 연도 예산, 결산 발표 내용

Ⅳ. 종합평가

<경제사업에서의 성과 부진>

○ 북한은 2007년을 경제강국 건설에서 새로운 국면이 마련된 전환의 한 해라고 평가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경제강국' 건설이 여의치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음.

- 2007년 경제부문 사업정형(성과)을 부문별로 간략하게 보고하고 있어 2007년 경제건설 목표 달성에는 미달
- 특히 북한이 지속적으로 강조해 온 4대 선행부문의 발전 및 먹는 문제 해결을 위한 과업과 관련한 구체적인 성과는 극히 일부만 제시
- 수해피해 복구자금 등 예상 밖의 추가자금 지출로 인한 재정적자 발생 등을 언급하면서 경제사업에서의 성과 부진을 시사

<내각의 위상 약화 가능성>

○ 이번 제11기 제6차회의에서 내각이 보고한 내용이 간략하고 형식적인 측면에 치우치고 있어 내각의 위상과 역할에서의 변화 움직임이 나타난 것으로 파악할 수 있음.

- 지난 제11기 제5차회의에서는 2007년 과업을 부문별로 매우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내각의 경제 전반에 대한 조직 장악과 수행능력 개선 및 향후 경제건설 사업의 내각 주도 예상
- 그러나 이번 제6차회의에서 제시된 2007년 사업정형(성과)의 구체성 결여와 2008년 과업 대폭 축소는 경제사업을 주도한 내각에 대한 문책 가능성 내포
- 지난 제5차회의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참석하였으나 이번 제6차 회의에는 불참한 것은 내각에 대한 불만의 표출

- 이러한 정황에 비추어 볼 때 경제건설 사업을 성과적으로 달성하지 못한 내각의 역할과 위상 약화

<과학기술 발전에 대한 추진 의지 후퇴>

○ 북한은 경제성장에서 과학기술의 기여도 향상을 목표로 과학기술 발전을 강조하고 있으나 현시점에서 과학기술 발전에 대한 추진 의지가 후퇴한 것으로 판단됨.

- 2006년 최고인민회의 제11기 제4차 회의에서 셋째 의정으로 “과학기술 발전을 다그쳐 강성대국 건설을 힘있게 추동할데 대하여”를 보고하고 이를 최고인민회의 결정으로 채택
- 2007년에는 당의 과학기술 중시노선에 맞게 과학기술부문에 집중투자할 것임을 밝히고 예산을 2006년 대비 60.3% 대폭 증액 편성
- 그러나 2007년 결산에서는 과학기술부문에 대한 투자가 증가했다고만 언급하였을 뿐 구체적인 증가율은 미발표
- 또한 북한은 새로운 과학기술발전 5개년 계획(2008~2012년)을 수립하였으나 2008년도 과학기술부문에 대한 예산지출계획 증가율은 6.1%에 불과

<경제강국 건설 불투명>

○ 북한은 2008년에 경제강국 건설의 진격로를 열자고 주장하고 있으나 경제강국 건설을 위한 새로운 내용은 전혀 언급하지 않았음.

-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 보고·토의된 경제발전 정책(과업)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내세웠던 일반적인 내용의 반복
- 경제개혁 및 시장 활성화 등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및 과업, 장기 경제계획 미제시

○ 지난 수년간 최고인민회의에서 보고된 국가예산, 결산을 살펴보더라도 경제강국 건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재정 여력이 부족함을 알 수 있음.

- 2002년 '7·1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 2007년까지 지속적인 재정적자 발생
- 국가예산계획의 총 증가율은 수입과 지출 모두 2005년 이래 지속적으로 둔화
- 예산수입계획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국가기업이익금 수입의 증가율은 2004년 이래 지속적으로 둔화
- 즉, 경제강국 건설에 필요한 국가재정(예산수입)이 부족

<부록>

최고인민회의 제11기 제6차회의, 4.9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

(4.9, 20:08, 중·평방, 중앙TV, 중통)

위대한 당의 선군영도따라 주체의 강성대국 건설위업이 새로운 역사적 단계에 들어선 격동적인 시기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1기 제6차 회의가 4월 9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됐습니다.

회의에는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이 참가했습니다.

회의에는 당, 무력기관, 정권기관, 사회단체, 성, 중앙기관 일꾼들, 과학, 교육, 문화예술, 보건, 출판보도부문 일꾼들이 방청으로 참가했습니다.

당과 군대, 국가 간부들과 우당 위원장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들이 주석단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최고인민회의 의장과 부의장이 의장석에 앉았습니다.

최태복 의장이 개회사를 했습니다.

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은 의정들이 토의됐습니다.

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의 주체 96(2007)년 사업정형과 주체 97(2008)년 과업에 대하여.

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체 96(2007)년 국가예산집행의 결산과 주체 97(2008)년 국가예산에 대하여.

회의에서는 **내각총리 김영일 대의원이 첫째 의정에 대한 보고**를 했습니다.

대의원 동지들! 조선노동당이 제시한 강성대국 건설의 웅대한 목표를 받아안고 전당,

전군, 전민이 커다란 포부와 신심에 넘쳐 총공격전에 한결같이 떨쳐나선 역사적 시기에 소집된 본 최고인민회의가 사회주의 경제강국 건설을 다그치는 데서 중요한 전환적 계기로 되리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지난해 내각의 사업정형과 올해 과업에 대하여 보고하려고 합니다.

지난해는 우리 당의 독창적인 선군혁명영도 아래 공화국의 정치, 군사적 위력이 만천하에 과시되고 경제강국건설에서 새로운 국면이 마련된 투쟁과 전환의 한해였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95돌, 조선인민군창건 75돌 기념 대 정치축전과 주요 정치적 사변들을 통하여 우리의 사상과 전통의 확고부동성, 당의 두리에 일심단결된 천만군민의 불굴의 의지와 전투력이 남김없이 발휘되고 공화국 정권은 더욱 반석같이 다져졌습니다.

우리 당의 위대한 선군정치에 의하여 마련된 강력한 정치군사적 위력에 의거하여 경제건설에 역량을 집중한 결과 지난 해 나라의 경제적 잠재력과 우리 인민의 무궁무진한 창조능력을 과시하는 귀중한 성과들이 이룩되었습니다.

지난해에 내각은 우리 당의 선군시대의 경제건설 노선을 확고히 틀어쥐고 인민군대의 전투력 강화와 국방공업 발전을 위한 물질적 보장사업에 선차적인 힘을 넣으면서 농업과 경공업 부문에서 생산적 앙양을 일으켜 선행부문을 추켜세우고 인민경제의 기술개건을 다그치는데 중심을 두고 경제사업을 작전하고 조직 전개하였습니다.

우리 당의 불멸의 영도업적이 깃들어 있는 단위들을 본보기로 내세우고 이미 마련해 놓은 토대에 의거하여 생산 잠재력을 최대한 발양시키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임으로써 지난해에 수풍발전소, 룡성기계연합기업소, 대안친선유리공장, 대동강축전지공장, 박천견직공장을 비롯하여 주요 공장 기업소들이 인민경제 계획을 넘쳐 수행하였습니다.

특히 지난해에 전력생산과 공작기계, 발전기, 화학비료, 일반 천, 신발을 비롯한 주요 공업제품의 생산이 전해에 비하여 훨씬 늘어난 것은 우리 공업이 활성화의 궤도에 확고히 들어섰다는 것을 실증해주고 있습니다.

삼수발전소를 비롯하여 새로운 발전소들이 성과적으로 조업되고 김책제철연합기업소, 천리마제강연합기업소의 주요 생산공정들이 기술개건 되었으며 철길강도를 높이기 위한 사업과 기관차, 화차생산 기지들을 정비 보강하기 위한 사업이 적극 추진된 것을 비

롯하여 인민경제 선행부문 기초공업 부문의 물질 기술적 토대가 더욱 튼튼히 다져졌습니다.

단천제련소, 희천공작기계공장, 평양3.26전선공장, 순천세멘트연합기업소, 함흥목재품공장을 비롯한 주요 공장 기업소들의 현대화가 힘있게 추진되었습니다.

영남배수리공장을 종합적인 대형짐배수리기지로 꾸리기 위한 사업이 성과적으로 진행되고 무역항들의 기술개건이 활발히 진행되었으며,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체신을 현대화하기 위한 투쟁속에서 각종 정보의 통신을 원만히 보장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습니다.

2.8비날론연합기업소, 평양방직공장, 원산구두공장, 경성도자기연합기업소를 비롯한 여러 화학 중공업기지들에 선진기술공정들이 도입되고 회령시와 장강군, 의주군을 비롯한 많은 시군의 지방산업공장들이 기술 개건되었으며, 공장, 기업소, 생활필수품직장, 작업반들이 성대히 개건되는 등 전반적 소비품 생산토대가 보강되었습니다.

당의 농업혁명방침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 과정에 다수확 품종들이 널리 도입되고 미루벌 물길공사가 활발히 진행되고 평북도 돼지공장을 비롯하여 사리원, 강계, 함주 등 여러 지역에 현대적 축산기지들이 훌륭히 일떠섰습니다.

국토관리사업을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한 만년대계의 사업으로 틀어쥐고 나감으로서 주요 도로들의 건설 및 기술이 개건되고 강하천 정리와 제방공사가 군중적 운동으로 힘있게 벌어져 국토의 면모가 더욱 일신되었습니다.

혁명의 수도 평양시 주요 거리 보수와 회령시를 꾸리기 위한 사업이 성과적으로 진행되고 사리원시 민속거리가 특색있게 꾸려진 것을 비롯하여 도시건설 및 보수사업이 힘있게 추진되고 농촌마을들을 미곡리 마을처럼 꾸리기 위한 사업이 활발히 벌어져 이르는 곳마다에 선군시대 사회주의 선경이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당의 과학기술중시 노선을 높이 받들고 모든 것이 어렵고 부족한 조건에서도 과학기술발전에 큰 힘을 넣은 결과 2007년까지 과학기술발전 5개년계획의 주요 과제들이 수행됨으로서 국가에 많은 이득을 주었으며, 지난해에만 하여도 주요 과학기술성과들이 이룩되어 생산의 활성화와 인민경제의 기술개건에 이바지하였습니다.

지난해 여름 우리나라에는 예년에 없는 강한 폭우가 세 차례나 연이어 들이닥쳐 막대

한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 엄혹한 자연재해 앞에서 우리 군대와 인민은 추호의 주저도 없이 당의 두리에 더욱 굳게 뭉쳐 피해복구사업에 한사람 같이 떨쳐나 선군조선의 전투적 기백을 다시 한번 온 세상에 떨치었습니다.

우리 인민은 우리 큰물피해복구사업을 도와준 해외동포들과 세계 진보적 인민들, 국제기구들의 성의있는 협조에 대하여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이를 잊지 않을 것입니다.

사회주의 교육에 관한 테제 발표 30돌이 되는 지난해에 교육부문에서는 김일성종합대학, 함흥화학공업대학, 청진광산금속대학을 비롯한 각급 교육기관들을 현대적으로 꾸리고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업에서 전진이 이룩되었으며 보건부문에서는 함경북도 인민병원이 새로 건설되고 평양의학대학병원을 비롯한 중앙과 도, 시, 군 인민병원, 온천치료실들이 더 잘 꾸려졌을 뿐만 아니라 의약품 생산과 공급사업이 개선되었습니다.

우리 당의 정력적인 영도아래 선군음악예술의 새로운 경지를 보여주는 우리식 음악작품들이 수많이 창작되고 군중문화예술의 참다운 본보기들이 창조되었으며 체육부문에서 공화국의 영예를 빛내이고 인민들에게 기쁨을 안겨주는 훌륭한 경기성과들이 이룩되었습니다.

지난해 경제, 문화건설 분야에서 이룩된 이 모든 성과들은 천만군민을 강성대국의 영마루에로 확신성 있게 이끌어 나가고 있는 우리 당의 노숙하고 세련된 선군혁명영도에 의하여 마련된 빛나는 결실입니다.

선군의 기치높이 역사의 도전을 짓부시며 전당, 전군, 전민을 불러일으켜 조국번영의 전면적 개화기를 열어 나가고 있는 조선노동당의 불멸의 업적은 후손만대에 길이 빛날 것입니다.

대의원 동지들! 사회주의 강성대국 건설을 위한 우리의 투쟁은 오늘 새로운 역사적 전환기에 들어섰습니다. 부강조국 건설위업을 승리의 한길로 영도하고 있는 우리 당은 올해부터 총공격전을 벌여 위대한 수령님의 탄생 100돌이 되는 2012년에 강성대국의 대문을 기어이 열어놓을 데 대한 웅대한 목표를 제시하였습니다.

올해 경제부문의 중심과업은 당의 선군시대의 경제건설노선을 높이 받들고 나라의

방위력을 강화하기 위한 보장사업을 최우선시 하면서 인민경제의 선행부문 기초공업부문을 추켜세워 경제강국건설의 진격로를 열어제끼고 인민경제의 기술개건을 계속 힘있게 밀고 나가는 한편, 인민생활 제일주의 원칙에서 인민들의 먹는 문제, 식량문제, 소비품문제를 결정적으로 풀어 근로자들의 생활에서 실질적인 개선을 가져오게 하는 것입니다.

뜻깊은 올해에 우리는 공화국 창건 60돌을 맞는 올해를 조국청사에 아로새겨질 역사적 전환의 해로 빛 내이자 라는 당의 전투적 구호를 높이 받들고 총공격전의 불길을 높여 모든 부문에서 새로운 비약과 전진을 이룩함으로써 공업총생산액을 장성시킬 것입니다.

내각은 올해에 인민경제 선행부문 기초공업부문을 사회주의 경제건설의 생명선으로 틀어쥐고 나라의 모든 인적, 물적 자원을 전력, 석탄, 금속공업과 철도운수를 추켜세우는데 총집중할 것입니다.

계속하여 보고자는 전력공업 발전에 계속 큰 힘을 넣어 지금 건설중에 있는 대규모 수력발전소들의 조업을 앞당기고 현존 수력발전소들의 수차개조 사업을 힘있게 밀고 나가면서 화력발전소들의 설비보수와 석탄보장 사업을 짜고드는 것과 함께 생산된 전력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이용하도록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자는 또한 석탄공업 부문에서 굴진을 선행시켜 기본굴진에 의한 확보탄량을 철저히 앞세우며 채탄장 수를 결정적으로 늘이고 선진적인 채탄방법을 적극 받아들여 석탄생산을 높은 수준에 올려세우며 금속공업 부문에서 주체철 생산방법과 기술공정을 더욱 완성하고 설비들을 정비, 보강하여 생산을 정상화하면서 금속공장들에 물동수송 문제를 해결하여 철강재 생산에서 근본적인 전환이 일어나도록 할 데 대해 언급했습니다.

보고자는 철도운수 부문에서 기관차, 화차 생산과 수리를 강화하여 운영대수를 적극 늘이고 수송지휘에서 유일사령 지휘체계를 확립하여 철도화물 수송량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해 나가도록 할 것이라고 하면서 오늘의 절박한 현실적 요구로부터 인민경제의 4대 선행부문에 대한 통일적인 지휘체계를 세워 이 부문 호상간 연계와 협동을 강화하며 모든 단위들에서 선행부문, 기초공업부문을 추켜세우는데 적극 협력함으로써 경제강국건설의 진격로를 열어 나가는데 기여하도록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자는 계속하여 지질탐사 사업을 확고히 앞세워 석탄, 유색금속 등 유용광물 개발

후보지들을 전망성 있게 마련하고 채굴공업을 발전시켜 나라의 지하자원을 적극 개발하며 기계공업 부문에서 이미 마련해 놓은 생산토대를 효과적으로 이용하여 여러 가지 기계제품 생산을 결정적으로 늘여나갈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전자공업 발전에 힘을 넣어 전자제품 생산을 늘리며 체신부문에서는 체신의 현대화를 계속 힘있게 추진하고 화학공업부문과 건재공업부문, 임업부문에서도 기술개건을 다그쳐 중요 화학제품과 세멘트, 통나무 생산을 결정적으로 늘여나갈 것이라고 보고자는 지적했습니다.

인민생활 제일주의를 틀어쥐고 나가는 것은 공화국 창건 60돌을 맞는 올해 내각 앞에 나선 중요한 과업이라고 하면서 보고자는 당의 농업혁명방침을 높이 받들고 다수확 품종들을 적지적작의 원칙에서 전면적으로 받아들이고 선진적인 영농기술과 영농방법을 널리 보급, 일반화 하며 자체로 농사짓는 운동을 힘있게 벌여 올해에 인민들의 먹는 문제, 식량문제 해결에서 커다란 전진을 이룩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자는 당의 현명한 영도아래 최근년간 새로 건설된 현대적인 닭공장, 오리공장들과 돼지공장들에서 고기와 알 생산을 늘이며 경공업공장들에 만부하를 걸어 질 좋은 인민소비품들을 대대적으로 생산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당의 예방의학적 방침을 높이 받들고 각급 병원들을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잘 꾸리고 의료봉사 수준을 한층 높임으로써 우리나라 인민적 보건제도의 생활력이 남김없이 발휘되게 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보고자는 우리 당의 원대한 수도건설 구상에 따라 평양시 건설을 대담하고 통이 크게 조직 전개해 나가며, 국토관리사업을 전망계획에 따라 착실히 진행하여 온 나라 강산을 사회주의 선경으로 변모시키도록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자는 올해부터 2012년까지 새로운 국가과학기술발전 5개년 계획 수행에 들어가게 된다고 하면서 과학기술 발전 5개년 계획은 인민경제 선행부문을 추켜세우고 식량문제를 비롯한 인민생활 문제를 결정적으로 해결하며 첨단과학기술 부문의 튼튼한 토대를 구축하고 인민경제 중요 부문들을 현대화, 정보화하는데서 나서는 과학기술적 문제들을 풀어나감으로써 경제발전에서 과학기술 발전의 기여율을 끊임없이 올려세울 것을 총적 목표로 한 웅대한 설계도라고 지적했습니다.

올해에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과학기술발전 5개년계획의 첫해 과제들을 어김없이

수행하며 모든 공장 기업소들에서 높은 과학기술에 기초한 생산체계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는 한편 나라의 프로그람 기술을 빨리 발전시키는 것을 비롯하여 정보산업발전에 국가적인 힘을 넣도록 할 것이라고 보고자는 지적했습니다.

경제강국건설의 현실적 요구에 맞게 나라의 대외경제사업을 더욱 확대 발전시켜 나가는 것은 올해 내각 앞에 나서는 중요한 과업의 하나라고 하면서 보고자는 다른 나라들과의 대외경제관계에서 주체를 철저히 세우고 무역활동을 다양화 다각화하며 경제합영합작과 경제기술협조사업을 확대 발전시켜 나가도록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사회주의 경제관리에 대한 지도와 관리를 끊임없이 개선하고 우리식으로 완성해 나가는 것은 내각의 중요한 임무이며 사회주의 경제강국건설에서 절박하게 해결을 기다리는 관건적 문제라고 하면서 보고자는 이렇게 계속했습니다.

모든 경제지도일꾼들은 당의 경제사상과 이론, 방침을 확고한 지침으로 삼고 경제관리에서 사회주의 원칙, 집단주의 원칙을 철저히 고수하면서 우리 식의 경제관리 방법들을 부단히 연구 완성해 나가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사회주의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어제끼기 위한 우리의 장엄한 투쟁은 더 없이 정당하고 그 투쟁목표는 명백하며 선군혁명의 장구한 투쟁의 길에서 혁명의 수뇌부 두리에 굳게 뭉친 일심단결과 핵무기보다 강한 천만군민의 정신력이 있고 자립경제의 튼튼한 토대가 있는 한 우리의 승리는 확정적입니다.

모두다 공화국 창건 60돌을 자랑 찬 승리로 빛 내이며 선군으로 존엄 높은 이 땅위에 융성 번영하는 사회주의 강성대국을 일 떠 세울 그날을 앞당기기 위하여 힘차게 싸워나갑시다.

회의에서는 **내각 부총리 노두철 대의원이 둘째 의정에 대한 보고**를 했습니다.

대의원 동지들! 저는 공화국 내각의 위임에 따라 본 회의에 앞서 진행된 최고인민회의 예산위원회에서 검토심의한 지난해 국가예산의 집행결산 정형과 우리 당의 정책적 요구를 구현하여 새로 편성한 올해 국가예산에 대하여 보고하겠습니다.

지난해 인민경제 모든 부분에서 승리의 신심 드높이 선군조선의 일대전성기를 열어나갈 데 대한 당의 전투적 호소를 높이 받들고 전례없는 생산적 앙양을 일으키고 기술개건을 힘있게 다그친 결과 예년에 없는 큰물피해로 막대한 재정적 손실을 입은 조건에

서도 국가예산이 정확히 집행되었습니다.

국가예산 수입은 100.2% 수행되었으며 그 전해에 비하여 106.1%로 장성되었습니다. 중앙예산 집행에서는 육해운성, 건설건재공업성, 국토환경보호성, 국가자원개발지도국과 화력건설연합기업소, 북창화력발전연합기업소를 비롯한 성 중앙기관과 관리국연합기업소들이 예산 수입계획을 넘쳐 수행하였습니다.

지방예산집행에서는 전국의 도, 시, 군들에서 예산수입계획을 초과 수행함으로써 지방예산 수입은 110.9%로 수행되고 지방자체의 수입으로 계획된 지출을 보장하고도 많은 자금을 중앙예산에 들여놓았습니다.

지난해 국가예산 지출계획은 집행과정에 큰물피해 복구자금을 비롯하여 예상치 않았던 막대한 자금이 추가 지출된 결과 101.7%로 초과 집행되었습니다.

인민생활 향상을 자기 활동의 최고 원칙으로 내세우고 있는 우리 당의 숭고한 의도와 구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지난해에 국가예산에서는 전해에 비하여 농업부문에 대한 지출을 108.5%, 경공업부문에 대한 지출을 늘림으로써 전반적 농업생산을 늘일 수 있는 확고한 전망을 열어 놓을 수 있게 하였으며 경공업의 기술개건을 적극 추진시켜 인민소비품 생산토대를 튼튼히 다질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인민경제 선행부문, 기초공업 부문을 결정적으로 추켜 세울 데 대한 당의 정책적 의도를 구현하여 전력, 석탄, 금속공업과 철도운수 부문에 많은 자금을 투자한 결과 이 부문의 물질 기술적 토대가 더욱 강화되었으며 경제강국 건설의 추동력인 과학기술 부문에 대한 투자가 늘어남으로써 국가과학기술발전 5개년 계획 과제들이 수행되고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 최근 과학기술 성과들이 적극 도입되었습니다.

공화국 정부는 아직 나라의 경제가 전반적으로 활성화되지 못한 조건에서도 인민적 시책을 실시하는데 계획보다 자금을 더 지출하여 인민들이 국가적 혜택을 원만히 보장받을 수 있게 하였습니다.

지난해에도 우리는 당의 선군혁명 노선을 받들어 국방비로 국가예산 지출총액의 15.7%를 지출하여 나라의 존엄과 자주권을 굳건히 수호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지난 해 국가예산 집행에서 이룩된 이 모든 성과들은 우리 당 재정정책의 정당성과 우리나라 사회주의 국가예산의 생활력에 대한 뚜렷한 증시로 됩니다.

대의원 동지들, 오늘 우리 앞에는 원대한 포부와 희망에 넘쳐 사회주의 경제강국건설에서 새로운 앙양을 일으킴으로서 공화국 창건 60돌을 맞는 뜻깊은 올해를 조국청사에 아로새겨질 역사적 전환의 해로 빛내어야 할 영예로운 과업이 나서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고자는 올해 국가예산은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온갖 예비와 가능성을 남김없이 동원 이용하여 예산수입을 최대한 늘이고 비생산적 지출을 극력 줄이는 원칙에서 편성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올해 국가예산수입계획은 지난해에 비해서 104% 장성되게 된다고 하면서 그는 국가예산수입의 기본 원천인 국가기업이득금 수입은 지난해보다 104.7%, 협동단체 이득금 수입은 100.4%, 고정재산 감가상각금 수입은 102.6%, 부동산 사용료 수입은 103.1%, 사회보험료 수입은 101.1%로 늘일 것으로 예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올해 국가예산지출계획은 우리 당의 선군혁명노선을 구현하여 나라의 방위력을 강화하는데 계속 힘을 넣으면서 사회주의 경제건설의 생명선인 인민경제 선행부문, 기초공업부문을 추켜세우고 인민생활 향상에서 획기적인 전환을 가져올 수 있도록 지난해에 비해서 102.5%로 늘이게 된다고 그는 지적했습니다.

그는 올해의 국가예산에서는 국가예산지출 총액의 15.8%를 국방비로 돌리고 지난해보다 전력, 석탄, 금속공업과 철도운수부문에 대한 지출을 149.8%, 농업부문에 대한 지출을 105.5%로 늘이며 경공업에 대한 지출을 늘려서 인민경제의 선행부문, 기초공업부문에서 생산적 앙양을 일으키고 인민들의 먹는 문제, 식량문제 해결에서와 소비품 생산에서 실질적인 전환이 일어나게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온 나라를 사회주의 선경으로 만들기 위한 기본 건설과 국토관리, 도시경영부문에도 많은 자금을 지출하고 새로운 국가과학기술발전 5개년 계획 수행에 들어가는 올해에 이 부문에 대한 지출을 지난해에 비해서 106.1%로 늘일 것이라고 하면서 그는 올해의 국가예산에서는 지난해에 비해서 인민적 시책에 101.7%, 그 가운데서 교육부문에 104.2%, 보건부문에 105.9%로 자금지출을 늘여 우리나라 사회주의 국가예산의 인민적 성격과 우월성이 높이 발양되게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올해에도 총련의 민주주의적 교육사업 발전을 위하여 재일동포 자녀들에게 많은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을 보내주게 된다고 지적하고 다음과 같이 계속했습니다.

대의원 동지들! 올해 국가예산을 성과적으로 집행하는 것은 모든 부문, 모든 단위 경제지도일꾼들 앞에 나선 법적 과제입니다.

모든 경제지도일꾼들은 당의 경제사상과 이론방침을 경제강국 건설의 확고부동한 지침으로 삼고 1970년대 당의 기초축성 시기 일꾼들처럼 예리한 정책적 안목과 완강한 실천력으로 맡겨진 혁명초소에서 최대의 마력을 내어 월별, 분기별 인민경제계획과 국가예산 수립계획을 어김없이 수행하여야 하겠습니다.

사회주의 원칙을 확고히 지키면서 가장 큰 실리를 얻을 수 있게 경제관리와 재정관리를 개선하는 것은 올해 국가예산을 성과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중요한 방도입니다.

경제지도일꾼들은 우리의 튼튼한 자립적 민족경제 토대에 의거하여 과학적인 기업전략, 경영전략을 세우고 실리를 따져가면서 경제사업을 조직 전개해 나가며 경영계산과 회계결산의 과가수준을 높이고 일 생산 및 재정총화를 실속있게 하여 최대한으로 증산하고 절약할 데 대한 당의 방침을 철저히 관철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재정운영부문 일꾼들은 국가예산 집행을 책임지겠다는 자각을 안고 혁명적 사업기풍을 발휘하여 재정의 유일관리제 원칙의 요구에 맞게 재정수입을 최대한으로 늘이고 국가자금을 예산항목에 규정된 대로 지출하여 효과적으로 전략적으로 이용하며 재정규율, 현금유통규율을 강하게 세우고 감독 통제를 더욱 강화하여야 하겠습니다.

올해 우리 앞에 나선 과업은 방대하지만 전당 전군 전민을 사회주의 강성대국 건설의 승리에로 확신성 있게 이끌어 나가는 우리 당의 필승불패의 선군혁명 영도가 있고 당의 두리에 천만군민이 하나로 굳게 뭉친 일심단결의 위력과 자위적 국방력, 자립적 민족경제의 귀중한 밑천이 있기에 승리는 확정적입니다.

모두 다 우리 당이 선군혁명 영도를 높이 받들고 올해 국가예산을 성과적으로 집행하여 경제강국 건설을 위한 총공격전에서 자랑찬 성과를 이룩함으로써 공화국 창건 60돌을 맞는 뜻깊은 올해를 조국청사에 아로새겨질 역사적 전환의 해로 빛내어 나갑시다.

회의에서는 첫째 의정과 둘째 의정에 대한 토론들이 진행되었습니다.

먼저 **전승훈** 대의원이 토론했습니다.

대의원 동지들, 저는 본 최고인민회의 심의에 제출된 보고들에서 지난해 내각사업과

국가예산집행이 정확히 총화 결산되었으며 공화국 창건 60돌을 맞는 뜻깊은 올해에 경제강국건설을 위한 총공격전을 힘있게 벌여 나갈 수 있도록 내각의 사업방향이 명확히 제기되고 국가예산도 그에 맞게 바로 편성되었다고 인정하면서 이를 전적으로 지지 찬동합니다.

조선노동당의 현명한 영도밑에 지난해 내각은 인민경제의 선행부문, 기초공업부문을 추켜세우는데 힘을 넣고 경제조직사업을 짜고들어 경제강국의 영마루에로 비약하기 위한 물질 기술적 토대를 보다 튼튼히 다져나갔습니다.

지난해 대규모 수력발전소와 중소규모 수력발전소 건설이 힘있게 추진되어 발전능력이 확대되었으며, 석탄공업부문에서 석탄생산을 비약적으로 늘일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놓았습니다.

금속공업의 기술개건이 적극 추진되었을 뿐 아니라 주체철 생산 전망이 확고히 열려지게 되었습니다.

철도운수부문에서 철길강도를 높이기 위한 사업과 기관차, 화차 생산기지들의 기술개건이 성과적으로 추진되어 철도의 물질 기술적 토대가 보다 강화되었습니다.

계속하여 그는 공화국 창건 60돌이 되는 뜻깊은 올해에 인민경제 선행부문을 추켜세우기 위한 경제작전과 지휘를 현실성 있게 바로하며 경제조직사업을 혁명적으로 조직전개함으로서 이 부문에서 새로운 혁명적 앙양이 일어나도록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다음으로 **김성식** 대의원이 토론했습니다. 지난해의 석탄공업부문에서 석탄생산을 늘이고 화력발전소들에 석탄을 보장할 수 있도록 물질적 토대를 마련한데 대해서 그는 언급했습니다.

그는 오늘 석탄생산을 결정적으로 늘이는 것은 경제발전과 인민생활 향상에서 필수적 요구로 나서고 있다고 하면서 이렇게 계속했습니다.

올해 우리 석탄공업부문에서는 인민군대의 혁명적 군인정신을 따라 배워 탐사를 앞세울 수 있도록 탄사설비 복구사업을 적극 벌이면서 탐사속도와 효율을 높여 필요한 석탄을 확보함으로써 탄광심부 개발 전망을 열어놓겠습니다.

이와 함께 모든 탄광들에서 기본굴진에 의한 확보탄량 3년분, 준비굴진에 의한 확보탄량은 6개월분 앞세워 석탄생산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매장량이 많고 채굴조건이 좋으며 특히 화력탄을 생산하는 대규모 중요 탄광들의 생산능력을 결정적으로 늘이면서 생산능력을 더 조성하는 한편 채탄광 책임 건설을 다그쳐 올해에 필요한 석탄생산 능력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으로 이미 마련된 생산토대를 최대한 효과적으로 이용하여 운반능력을 높이는 한편 설비가동률을 결정적으로 높이겠습니다.

이와 함께 대중적 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여 앞선 기술을 적극 받아들이고 품이 많이 드는 탄광작업을 기계화 자동화하며 정보산업시대의 요구에 맞게 높은 과학기술에 기초한 생산지휘체계를 세우겠습니다.

우리는 탄부들에 대한 후방공급과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밀고 나가며 경제사업을 대담하게 작전하고 혁명적으로 전개하여 경제발전과 인민생활에 필요한 석탄을 원만히 생산 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석탄공업부문에서는 공화국 창건 60돌을 맞는 올해에 석탄생산 계획을 수행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여 어버이 수령님 탄생이 되는 2012년에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어제끼는 데 적극 기여하겠다는 것을 굳게 결의합니다.

다음으로 **김봉식** 대의원이 토론했습니다. 대의원 동지들! 지난해 성진제강연합기업소에서는 위대한 김정일 동지께서 성강의 봉화를 지펴주신 10돌을 철강제 증산성과로 맞이하기 위한 힘찬 투쟁을 벌여 전해에 비하여 강철생산은 106.7%, 공업총생산액은 113.4%로 장성시키는 성과를 이룩하였습니다.

지난해 우리는 주체철 생산기지를 비롯한 자체의 원료생산기지를 더욱 튼튼히 꾸리고 생산공정과 설비현대화 수준을 높여 강철생산의 정상화를 확고히 담보하기 위한 물질적 토대를 강화하는데 중심을 두고 경제조직사업을 짜고 들었습니다.

기업소에서는 주체철 생산방법을 완성하였으며 이를 공업화하기 위한 설비제작과 조립공사를 성과적으로 결속하여 주체철을 강철생산에 받아들일 수 있는 확고한 전망을 열어놓았습니다.

지난해 우리는 생산장성의 열쇠는 기술적 진보에 있다고 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현지 말씀을 지킴으로 하여 강철생산을 정상화하는 데서 절박하게 제기되고 있는 원료들을 자체로 보장하기 위한 기술혁신 운동을 적극 벌임으로써 국가로부터 마그네샤크링카와 규소철을 받지 않고도 생산을 보장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또한 최신과학기술 성과를 생산에 받아들이기 위한 사업을 적극 진행하여 비삭선반기들의 능력을 2.5배로 높이었으며 성강3호 청년발전소 건설과 흑연광산개발도 힘있게 진척시켰습니다.

지난해 기업소에서는 후방사업에서도 큰 힘을 넣어 노동자들의 생활조건을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지난해 8월 삼복철 현지지도 강행군 길에서 우리 기업소를 또다시 찾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성강에서는 생산에서도 봉화를 들었고 기술개건과 후방사업에서도 봉화를 들었다고 높이 평가하시고 감사를 주시었습니다.

계속하여 그는 공화국 창건 60돌을 맞는 뜻깊은 올해에 주체철 생산을 결정적으로 늘리고 생산공정과 설비들을 현대화하는 사업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서 심화시키며 원료보장 대책을 철저히 세워나가는 것과 함께 지난 해 후방사업에서 이룩한 성과와 경험에 토대해서 종업원들에게 더 좋은 생활조건을 마련하여 철강재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함으로써 어머니 조국에 바치는 자랑찬 노력적 성과를 안고 9월의 대축전장에 떳떳이 들어설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다음으로 **김설** 대의원이 토론했습니다. 그는 지난 해 양강도에서 감자농사를 잘 짓는 것을 선차적인 과업으로 내세우고 경제조직 사업을 짜고들어 진행해서 국가알곡생산 계획을 103.3%로 넘쳐 수행한데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위대한 장군님이 숭고한 뜻을 받들고 지난해 도에서는 주민들의 살림집 건설을 앞세우면서 자체의 힘으로 도시와 농촌을 사회주의 선경으로 꾸리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가 적지 않은 성과를 이룩했다고 하면서 그는 이렇게 계속했습니다.

대의원 동지들! 우리는 올해에도 당의 감자농사 혁명방침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 큰 힘을 넣어 지난해의 계획보다 더 높이 세운 올해 감자생산 목표를 넘쳐 수행하겠습니다.

또한 은천강 3호발전소와 남사강 2호발전소를 조업하며 들쭉을 비롯한 지방의 원료원천과 잠재력을 적극 동원 이용함으로써 질 좋은 제품을 많이 생산하여 인민들에게 공급하겠습니다.

우리는 도안의 혁명전적지와 혁명사적지들을 더 잘 보존 관리하며 김정숙군과 김형직군 소재지를 잘 꾸리는 것을 비롯하여 도시경영사업과 국토관리사업을 개선하는데 큰 힘을 넣어 도로를 더 잘 꾸리겠습니다.

저는 도의 경제사업과 인민생활을 책임진 호주로 내세워 준 당의 크나큰 믿음을 언제나 가슴깊이 간직하고 경제사업에 대한 주권적 지도를 강화하여 공화국 창건 60돌이 되는 뜻깊은 올해를 조국청사에 아로새겨질 역사적 전환의 해로 빛내이며 위대한 수령님 탄생 100돌이 되는 2012년에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어 제끼는데서도 우리 도가 앞장서 나가겠다는 것을 굳게 결의합니다.

다음으로 **조병주** 대의원이 토론했습니다. 대의원 동지들, 저는 최고인민회의에 제출된 내각사업과 국가예산집행에 대한 보고들에서 지난해 사업이 정확히 결산 총화 되었으며 경제강국건설을 위한 총공격전의 요구에 맞게 올해 내각의 과업이 명확히 제기되고 국가예산도 옳게 편성되었다고 인정하면서 이에 전적인 지지와 찬동을 표시합니다.

지난해 우리 기계공업부문에서는 기계공장들의 기술개건에 선차적인 힘을 넣어 기계설비들과 생산공정의 현대화를 적극 다그치면서 이미 마련된 기계공업의 물질 기술적 토대가 은을 내게 하고 내부예비와 잠재력을 최대한 동원 이용하여 인민경제 선행부문, 기초공업부문에 더 많은 기계설비들을 생산 보장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였습니다.

지난해의 경험을 통하여 우리는 경제강국건설을 위한 당의 원대한 구상과 의도를 신념으로 간직하고 자체의 힘과 기술에 의거하여 분발하여 나선다면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 요구되는 기계설비를 얼마든지 생산 보장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미 마련해 놓은 커다란 잠재력을 발양시켜 기계공업을 기운차게 일떠세울 수 있다는 굳은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그는 당의 원대한 구상에 따라 일떠서는 대규모 수력발전소들과 중소형발전소들에 보낼 발전설비들을 질적으로 생산 보장하며 김책제철연합기업소를 비롯한 금속공장들의 현대화에 필요한 대상설비들을 제때에 생산 보장할데 대해서 지적했습니다.

그는 1970년대 당의 기초축성시기 일꾼들처럼 최대의 마력을 내어 일함으로서 공화국 창건 60돌을 맞는 뜻깊은 올해에 기계설비들을 더 많이 더 질적으로 생산 보장할 것을 결의 다졌습니다.

다음으로 **김영순** 대의원이 토론했습니다. 대의원 동지들! 지난 해 우리 룡천군 신암협동농장에서는 당의 농업혁명방침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여 국가알곡생산계획은 112%, 알곡수매계획은 116.4%로 넘쳐 수행하였습니다.

우리 농장에서는 지난해에 부침땅의 지력을 높이며 선진영농기술과 방법을 적극 받아들이는 것을 알곡생산을 늘이기 위한 중요한 문제로 틀어쥐고 여기에 힘을 집중하였습니다.

우리는 농장의 일꾼들을 분조들에 내려보내어 분조장들을 도와 필지별에 따르는 거름 방출량을 정확히 정하고 매일 거름생산 계획을 어김없이 수행하도록 하는 한편 일생산 및 재정총화에서 농장원들의 거름생산 실적을 질과 양에 따라 평가하여 노력일을 계산하여 주고 경쟁도표에도 올려주는 방법으로 대중의 생산열의를 높였습니다.

지난 해 우리 농장에서는 선진영농기술과 방법을 받아들이는 사업도 짜고 들었습니다. 우리는 지난 해 농사를 통하여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다수확 종자를 선정하고 땅의 지력을 높이며 선진영농기술과 방법을 적극 받아들인다면 얼마든지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다는 것을 절감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그는 부침땅의 지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앞세워 나가면서 이미 시험재배를 통하여 우월성이 확증된 다수확 품종들을 더 많이 심으며 선진영농기술과 방법을 적극 받아들이기 위한 사업을 짜고들어 진행하여 공화국 창건 60돌을 맞는 뜻깊은 올해에 농업생산에서 새로운 비약을 이룩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음으로 **장명학** 대의원이 토론했습니다. 그는 지난해 2.8비날론연합기업소에서 생산공정의 기술개건을 선차적인 과업으로 내세우고 대중적 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여 복잡한 기술적 문제들을 풀어 나감으로서 한개 공장과 맞먹는 생산공정을 새롭게 건설한 데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지난해 8월 삼복철 강행군길에서 기업소에 찾아오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자체로 창안 제작한 기계설비들과 기술개건한 생산공정들, 기업소에서 생산되는 제품들을 보아주

시면서 높이 평가해주시고 기업소가 나아갈 앞길을 환히 밝혀주셨다고 하면서 그는 이렇게 계속했습니다.

지난해의 투쟁을 통하여 우리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가르쳐 주신대로 이미 마련되어 있는 생산 잠재력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이용하고 우리의 힘과 기술로 생산공정의 기술개건을 벌여 나간다면 오늘의 조건에서도 기초화학공업을 얼마든지 추켜세울 수 있다는 굳은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대의원 동지들, 우리는 공화국 창건 60돌을 맞는 뜻깊은 올해에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으로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생산공정들의 기술개건을 계속 힘있게 다그쳐 기초화학제품 생산에서 새로운 혁신을 일으키겠습니다.

우리는 위대한 장군님의 현지말씀을 높이 받들고 화학제품생산을 계속 늘이며 생산공정들의 보수정비와 기술개건을 끝내고 생산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생산능력을 끊임없이 늘이면서 전반적인 생산공정들의 현대화를 실현하여 기업소를 새 세기의 요구에 맞는 주체적인 화학공업기지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저는 강성대국 건설의 최후승리를 위한 오늘의 총공격전에서 자신이 지닌 책임감을 깊이 자각하고 1970년대 당의 기초축성시기 일꾼들처럼 최대의 마력을 내어 자체의 힘으로 생산공정들을 개건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밀고 나감으로서 화학제품 생산에서 새로운 혁신을 일으켜 나라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 향상에 적극 이바지하겠다는 것을 굳게 결의합니다.

다음으로 **리시헌** 대의원이 토론했습니다. 대의원 동지들! 저는 최고인민회의 심의에 제출된 내각사업과 국가예산에 대한 보고들에서 지난해 사업이 정확히 총화되었으며 올해 경제강국 건설을 위한 총공격전을 벌여 나가는데서 나서는 내각의 과업이 명확히 제기되고 그에 맞게 국가예산도 옳게 편성되었다고 인정하면서 이를 전적으로 지지 찬동합니다.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지난해 삼복철 현지지도 강행군 길에 김책제철연합기업소를 찾으시어 지금 있는 하부구조들을 그대로 이용하면서 설비들을 정비 보강하고 기술 개선하여 생산을 빨리 추켜세울 데 대하여 가르쳐주시었을 뿐 아니라 금속공업의 주체화를 실현할 데 대한 구체적인 방향과 방도를 환히 밝혀주시었습니다.

지난해 우리 성에서는 나라의 철강재 생산에서 큰 몫을 맡고 있는 김책제출연합기업소를 추켜세우기 위한 사업을 선차적인 과업으로 내세우고 여기에 힘을 집중하였습니다.

우리는 현지에 내려가 기업소의 실태를 구체적으로 요해한데 기초하여 회탄로와 소결로를 비롯한 주요 생산공정들을 개건보수하기 위한 목표를 정하고 공사에 필요한 대상설비들과 자재들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을 세워 4호 회탄로와 1호 소결로 개건공사를 짧은 기간에 끝냄으로써 생산정상화의 돌파구를 열어놓았습니다.

우리는 금속공장들을 활성화하는 데서 관건적 의의를 가지는 철광산들에서 박토와 굴진을 앞세우면서 채굴장들을 확보하고 채굴설비들의 정비보강과 기술개건에 힘을 넣어 금속공장들에서 요구하는 광석을 제때에 원만히 생산보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지난해 우리 금속공업부분에서는 우리 식의 철생산방법을 완성하고 주체철 생산기지를 튼튼히 꾸리고 그 운영을 정상화하기 위한 사업에 힘을 넣어 주체철 생산을 훨씬 늘릴 수 있는 확고한 전망을 열어놓았습니다.

계속해서 그는 이미 마련되어 있는 주체철 생산기지들을 튼튼히 꾸리고 원료, 연료, 자재보장 대책을 철저히 세워 그 운용을 정상화하여 주체철 생산을 끊임없이 늘이며 무산광산연합기업소와 황해제철연합기업소, 천리마제강연합기업소에서 생산시설과 기술공정들을 보수정비하고 기술개건을 다그쳐 가까운 기간에 철강재 생산을 획기적으로 늘리도록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나라의 금속공업을 담당한 일꾼의 한 사람으로써 예리한 정책적 안목과 완강한 실천력으로 경제조직과 지휘를 책임적으로 하여 철강재 생산에서 혁명적 전환을 일으킴으로써 어버이 수령님의 탄생 100돌을 맞는 2012년에 강성대국의 대문을 활짝 열어 놓으려는 우리 당의 결심과 의지를 빛나게 실현해 나가는데 적극 이바지할 굳은 결의를 다졌습니다.

다음으로 **라창렬** 대의원이 토론했습니다. 대의원 동지들! 지난 해 우리 연탄군에서는 당의 지방예산제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는 투쟁을 힘있게 벌여 국가예산 수입계획을 112%로 넘쳐 수행하였으며 그 과정에 나라의 재정수입을 늘이고 지방경제 발전과 인민생활 향상에서 새로운 성과를 이룩하였습니다.

지난 해 우리 군에서는 지방산업공장들의 기술개건을 다그치고 최상의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며 인민생활에서 걸린 문제들을 풀기 위한 사업을 혁명적으로 조직 진행하였습니다.

우리는 전력생산을 앞세우면서 지방산업공장들의 기술개건과 생산 정상화에 대한 사업을 하나하나 실속있게 해나갔습니다. 우리는 내부예비를 최대한으로 탐구 동원하여 많은 자재들을 해결하고 30여개의 설비를 제작하여 장공장의 기초식품 생산공정을 개건하였으며, 제약공장을 현대화하고 연유첨가제 공장을 건설하였습니다.

지난 해 우리는 군 살림살이를 위한 물질적 토대를 튼튼히 다지며 인민생활에서 걸린 문제를 풀기 위한 사업에서도 큰 전진을 이룩하였습니다.

계속하여 그는 뜻깊은 올해에 지방예산 집행에 대한 주권적 지도를 강화하고 군 인민회의 대의원들의 역할을 높여 이미 마련된 토대와 잠재력을 최대한으로 동원하고 선진기술을 적극 받아들임으로써 지방산업 공장들의 기술개건을 다그치며 질좋은 인민소비품을 더 많이 생산 공급할 것이라고 하면서 도로관리와 나무심기를 비롯한 국토건설 사업을 만년대계의 사업으로 실속있게 벌여 어버이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불멸의 영도업적이 뜨겁게 어려 있는 연탄군을 일하기도 좋고 살기도 좋은 사회주의 선경으로 꾸려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음으로 **박인주** 대의원이 토론했습니다.

그는 지난해 함흥영예군인수지일용품공장에서 20여건의 가치 있는 새 기술혁신안을 받아들여 공장의 생산과 영예군인들의 노동조건을 개선하는데서 의의가 큰 설비들을 현대적으로 개조하고 소비품의 질을 높여 생산계획은 107.3%로, 국가예산납부계획은 113.3%로 넘쳐 수행한데 대해서 지적하고 이렇게 계속했습니다.

지난해 8월 역사적인 삼복철 현지지도 강행군의 나날 사나운 폭우를 헤치시고 또다시 우리 공장을 찾아주신 위대한 김정일 동지께서는 우리들이 이룩한 자그마한 성과도 크게 내세워주시며 영예군인들의 심장속에 혁명적 군인정신이 고동치고 있다는 높은 평가를 안겨주셨습니다.

대의원 동지들, 우리는 공화국 창건 60돌이 되는 뜻깊은 올해에 인민생활 제일주의를 높이 들고 나갈 데 대한 당의 의도에 맞게 위대한 장군님께서 지난해 8월 현지지도에서

주신 과업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하여 제품의 가지 수를 늘이고 그 질을 높이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여 나가겠습니다.

저는 평범한 영예군인에 불과한 자신을 한 개 공장을 책임진 일꾼으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으로 내세워주시고 사랑과 은정을 베풀어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크나큰 믿음을 한시도 잊지 않고 깊은 사색과 완강한 실천력으로 공화국 창건 60돌을 맞는 올해에 혁명적 군인정신이 맥박치는 공장의 영예를 계속 떨치며 공장에 깃든 당의 불멸의 영도업적을 더욱 빛내어 나가겠다는 것을 굳게 결의합니다.

회의에서는 **박도춘 대의원, 이태식 대의원, 문영철 대의원, 안인권 대의원, 변영호 대의원이 서면토론**을 했습니다.

회의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결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사업 보고와 주체 96(2007)년 국가예산 집행의 결산을 승인함에 대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법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체 97(2008)년 국가예산에 대하여가 대의원 전원 찬성으로 채택됐습니다.

최태복 의장이 폐회사를 했습니다.

회의에서는 **강능수 대의원을 최고인민회의 부의장에서 소환**했습니다.

지금까지 4월 9일에 진행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1기 제6차 회의 소식을 보내드렸습니다.

통일연구원 도서회원 가입 안내

통일연구원은 통일문제가 보다 현실적인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그동안 제한적으로 유관기관과 전문가들에게만 배포해오던 각종 연구결과물들을 보다 폭 넓게 개방하여 전국의 대형서점에서 개별구입하거나 본원의 정기회원에 가입하여 구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원의 간행물 분량이 많아 일일이 서점에서 구입하기에는 번거로움이 있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정기회원제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정기회원에게는 본원의 모든 간행물(연구총서, 국문논총, 영문저널, 학술회의 총서, 판매되지 않는 수시「정세분석보고서」등)을 직접 우편으로 우송해드리는 것은 물론 학술회의 초청 등 회원의 권리를 부여하오니 많은 이용을 바랍니다.

1. 회원의 구분

1) 학생회원: 대학 및 대학원생
2) 일반회원: 학계나 사회기관에서의 연구종사자
3) 기관회원: 학술 및 연구단체 또는 도서관 등의 자료실

2. 가입방법

1)「도서회원 가입신청서」작성
2) 신한은행 140-002-389681(예금주: 통일연구원)으로 계좌입금
3) 연회비: 학생회원 7만원, 일반회원 10만원, 기관회원 20만원

3. 가입기간

1) 가입한 날로부터 1년간 회원으로서의 자격유지
2) 회원자격을 계속 유지하실 분은 유효기간 만료 이전에 연회비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재가입 안내장을 발송)

4. 회원의 특전

1) 본 연구원이 주최하는 국제 및 국내학술회의 등 각종 연구행사에 초청됩니다.
2) 본 연구원이 발행하는 학술지「통일정책연구」와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를 포함하여 그 해에 발행되는 단행본 연구총서(연평균 15-20권), 학술회의 총서(연평균 5-6권), 협동연구총서(연평균 5-10권), 정세분석보고서(연평균 5-10권) 등의 간행물이 무료 우송됩니다.
3) 본 연구원에 소장된 도서 및 자료의 열람, 복사이용이 가능합니다.
4) 시중서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지난자료를 20% 할인된 가격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5) 저작권과 관련하여 DB써비스를 통해 압축한 자료는 제3자 양도 및 판매를 금합니다.

5. 회원가입 문의

ㅇ(142-728)서울시 강북구 4 · 19길 275(수유6동) 통일연구원
ㅇ출판정보관리팀 도서회원 담당자(전화: 901-2559, FAX: 901-2547)

※ 가입기간중 주소변경시에는 즉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절

취

선

회원가입신청서

성 명		주민등록번호	-	
근무처				
	직 위			
간행물 받을 주소	(우편번호 :)			
연락처	전 화		내선 전화	
	핸드폰		FAX	
	전자메일			
전공 및 관심분야				
회원구분	학생회원 ( ) 일반회원 ( ) 기관회원 ( )			

본인은 통일연구원의 정기회원 가입을 신청합니다.

200 년 월 일

신청인 (인)

※ 본 신청서를 팩스나 우편으로 보내주십시오(인터넷으로 가입가능)
(우142-728 서울시 강북구 4·19길 275(수유6동) 통일연구원 통일학술정보센터
FAX: 901-2547)

※ 신한은행 온라인 140-002-389681 (예금주: 통일연구원)

※ 본 연구원에서 여러분들을 위해 어떤 서비스를 더 제공했으면 좋은지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본 신청서 뒷면에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1기 제6차 회의 결과 분석

통일정세분석 2008-06

발행처 통 일 연 구 원

편집인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
서울시 강북구 4·19길 275 통일연구원
전화 : 901-2525(代), 팩스 : 901-2544

인쇄처 양동문화사 전화 : 2272-1767

인쇄일 2008년 4월 일

발행일 2008년 4월 일